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13, 사무엘 상 21-23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13회기 사무엘상 21-23장입니다. 도망가는 다윗(21장), 날뛰는 사울(22장),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23장).

다음 수업에서는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21장, 22장, 23장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장에서 계속하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2장에서 읽게 됩니다. 21장에서는 도망가는 다윗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사무엘상 17장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다윗이 골리앗이 되었을 때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응? 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줄 알았는데, 이 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는 골리앗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도주 중인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기 위해 라마로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적어도 한동안 사울을 선지자로 바꾸어 다윗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마을인 노브(Nobe) 마을로 갑니다. 거기에는 성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로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히브리어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아히멜렉은 이것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을 보고 떨며, 왜 당신은 혼자입니까? 왜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나요? 마치 그는 데이빗이 도주 중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식은 분명 여기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David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나를 사명으로 보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네게 보내는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 부하들에 관해서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당신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떡 다섯 개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게 주소서. 그래서 David는 식량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의 임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장소에서 그를 만날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나타나서 Adu llam에서 David를 만났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데이비드가 고립되어 목숨을 걸고 음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다윗에게 "내 손에는 보통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멀리하면 내가 너와 네 남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성별된 빵이 있느니라.

즉, 이것이 군사작전이라면 이 남자들은 이를 위해 봉헌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결혼 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봉헌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봉헌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배경을 채우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주님 앞에 진설된 빵으로서 안식일에 신선한 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빵을 떼어내고 신선한 빵으로 바꾸면 아론계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적인 접촉을 삼가하여 전투를 위해 헌신했다는 조건 하에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길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David는 그에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합니다.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내가 떠날 때마다 여자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몸은 거룩하지 않은 임무에서도 거룩합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성별된 빵을 줍니다. 그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놓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나 7절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날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간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엑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독자들은 그가 에돔 사람이라는 사실에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에돔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기 이스라엘 독자들은 사무엘을 더 큰 역사의 맥락에서 여호수아를 열왕기까지 보면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에돔 사람, 아,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것을 압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나는 검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내 말은, 비록 그가 군인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에 사울에 의해 급히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기는 쥐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David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 중 일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임무가 긴급했기 때문에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무기를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은 마치 그가 다윗에게 성취한 일을 의도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 그는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감지하고 과거에 어떻게 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에봇 뒤에는 천으로 싸여 있습니다.

원한다면 가져가세요. 여기에는 저것 외에는 칼이 없습니다. 여기 트로피로 갖고 있어요.

네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이니라. 당신이 그를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죽이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칼을 원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나에게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것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임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David는 패닉 모드에 있으며 무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아, 그만한 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검이군요.

이제 나는 최고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장을 다윗이 골리앗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골리앗의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10절, 그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블레셋 용사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날 그토록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곳이 골리앗의 고향이다. 그러니 사진을 찍어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현장에 도착하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자면 골리앗이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사람 아닌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고 그들은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대한 전사를 무찌르고 그들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그들이 나를 적으로 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투에서 죽인 그들의 유명한 영웅의 검을 들고 적진으로 곧장 왈츠를 추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여러 면에서 매우 슬프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그의 관심을 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알고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무슨 짓을 한거야? 그는 기억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이 왔던 때와 여호와께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에게 그날 당신이 쓰러뜨린 용사의 칼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운명과 역사, 개인의 역사를 상기시키지 않고서 이렇게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곤경에 처했을 때 몇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서 미친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손에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문에 침을 뱉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대문 문에 표시를 하고 수영에 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왕이 우리 문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데이비드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척합니다.

아기스는 자기 종들에게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를보세요. 그는 미쳤어요.

왜 그를 나에게 데려오나요? 나에게 미친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당신이 이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서 내 앞에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내 집에 와야 합니까? 그리고 Achish가 정부는 가득 차 있고, 정부 관료는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응, 그럼 지금처럼. 그래서 그는 단지 David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는 그를 도망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빗이 이런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가하는 압력은 아마도 그의 가족에게도까지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자 곤경에 처한 자나 빛진 자나 원한이 있는 자들이 다 그 주위에 모였고 그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느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은 약 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빛을 지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인 다윗의 일종의 사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때때로 하비루(Habiru)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뭉쳐 일종의 무법자 군대가 되는 또 다른 예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내 부모를 와서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그는 그들을 그곳의 안전한 곳에 모압 왕과 함께 남겨둡니다. 그러면 왜 모압 사람들이 속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조상을 기억해 봅시다.

룻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와 결혼했고 룻은 죽은 남편 말론을 위해 후손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에 속할 것이지만, 그도 보아스의 가문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Levirate 유형의 결혼. Ruth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하여 룻과 모압 사람들과 보아스는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가계에서는 제시와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조상은 모압의 혈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아무튼 22장 5절에서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너희가 외국 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압 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당신이 속한 곳인 유다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David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그곳이 실제로는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요.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뀌고 사울이 작가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약간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묻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 중 하나입니다. 화자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서술 문헌을 읽을 때 나는 항상 묻습니다. 왜 그런 세부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까? 때로는 심오한 이유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그릴 수 있도록 장면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러한 장소 중 일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단순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것들은 기브아 언덕 위 에셀나무 아래처럼 무대 위의 소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창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세부 사항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 창을 몇 번 사용했거나 창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과거 사울의 적대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데이비드를 살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둘러 서 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여기서 부족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연합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셨고, 사울은 부족한 용어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인데,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언급할 때 그것은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데이비드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밭과 포도원을 다 네게 주겠느냐? 그가 너희를 모두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으시겠느냐? 그는 그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 아래 특별한 지위를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8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 왕이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울이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왕의 종류입니다.

그분은 자기 부하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그들을 지휘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여기 있는 나라들처럼 전형적인 왕과 매우 흡사합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자기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무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에게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내 아들이 오늘처럼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다리도록 내 하인을 선동했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대한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엑이여, 그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도착했을 때 그는 노베에 있었고 여기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아마도 기회를 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동료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엑이 사울과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사울의 말대로 그를 노베에 있는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로 오니 아히멜렉 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쭙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이 특별한 세부 사항을 듣지 못했지만, 아키멜렉은 다음 이야기에서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인정하므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식량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엑은 자기가 본 것을 보고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중 노베에 있는 제사장인 모든 사람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에게 나아오니라 사울이 이르되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네, 주님,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새의 아들과 더불어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느냐? 그가 나를 배반하고 오늘처럼 나를 기다리려고 하였느냐? 그리고 아키멜렉은 여기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왕의 사위요 경호대장 다윗과 같이 충성스럽고 왕의 집에서 크게 존경받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여기서 그의 첫 번째 자기 방어는 David에 대해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반역자인 것처럼 들리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는 당신이 가진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입니다. 그럼 그를 돕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다윗을 돕는 것은 사실상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사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날이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처음으로 여쭙었던 날이었는가? 당연히 아니지. 나는 오랫동안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당신의 종이나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고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 데이빗은 당신에게 충성스럽습니다.

주의 충성된 종들 중 다윗이 전에 나에게 왔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사오니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나를 탓하지 마소서. 나는

근본적인 긴장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와 네 온 가족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16절). 그러자 왕은 옆에 있는 경비병들에게 명령하여 돌아서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

나는 사울이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종들, 즉 주님의 성별된 종들을 죽일 것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 후반절에서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기를 꺼렸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서 서술자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잘. 나중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 사울을 대적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종으로 택하실 때 당신이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사울이 여전히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고 다윗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불충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사울이 나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엑에게 명령했지만 그의 신하들은 그렇게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은 도엑에게 명령하여,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엑이 그들을 쳐죽였습니다. 나중에 독자들은 이것이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라면 그만큼 기대할 것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모든 민족 중에 에돔 사람과 연합하여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적하였느니라

내 말은, 데이빗의 사과를 발전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날에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마을 노베(Nobe)를 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 그 어린이와 젖먹이와 소와 당나귀와 양을 데리고 제사장의 성읍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울은 왜 왕위를 잃었나요? 그가 무슨 짓을 한거야? 주님께서 그에게 아말렉 사람들, 남자, 여자, 어린이, 동물을 모두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동물도 살려 두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에돔 사람 도엑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소유물에게 그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히둡의 손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내가 거기서 도엑을 보았다고 알려줍니다.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네 가족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고 말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상황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예민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옳은가? 어쩌면 그의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아달에게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이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수배 중이에요. 우리 둘 다 수배 포스터를 받았어요.

함께 가자.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David는 차선책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노브로 가면서 끔찍하고 끔찍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Abiathar를 돌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처럼 아비아달이 다윗의 문앞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약간의 회상이 있습니다. 23장의 처음 몇 절에서는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23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을 부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를 격려하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날뛰는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다윗이 도망가고, 22장에서는 사울이 날뛰고, 23장에서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지만, 이 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께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에서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치러 그일라로 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취약합니다. 그들은 사울이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적들에게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공격해 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들과 싸우는 동안 사울은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David에 대한 사과에 대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데이비드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니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의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살해한 인물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싸우려고 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구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회로 보고 이 시점에서 그의 생각이 너무 비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방금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으나 지금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맙소사! 하나님은 그에게 앞서 그에게 네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가두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것이 죄가 할 일이다.

사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 다윗을 대적할 때 자기 편에 계신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제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자신을 속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뚱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다윗에게로 피신한 유일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비아달을 통해 다윗에게 진리를 전하실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로 말미암아 그일라에 와서 그 성읍을 멸하려 한다는 말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데이빗은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이 정말로 올 것인가? 그리고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시민들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나를 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울이 올 것이다. 다윗이 묻되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거기 앉아서 아, 그는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아, 난 운명이군요.

사울이 올 터인데 그들이 나를 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아니, 데이빗은 떠난다.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나 이곳 저곳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해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고 확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참된 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그렇다고 그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 이미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에 더해, 내 생각에 철학자들이 반사실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특정 조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가상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물었을 때, 내가 여기 있으면 사울이 올까요? 응, 그럴 거야. 내가 여기 있다가 사울이 오면 그들이 나를 넘겨주겠느냐? 응, 그럴 거야. 그리고 데이빗은 떠난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정보는 귀중한 것이므로 그는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견고한 진과 스베 광야 작은 산에 머물며 왕래하니 사울이 날마다 그를 수색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술자는 사울이 앞서 말한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가두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리고 서술자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스프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죽이러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흥미롭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는 요나단을 통해 그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왔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좋은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좀 슬픈 일이에요. 나는 당신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의 두 번째 왕이 될 날을 꿈꿉니다. 그는 다윗에게 완벽하게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휘권을 쥐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사울의 죄가 그의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나단은 2인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성약이 맺히거나 확증되고 재확인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가서 주님 안에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고 다윗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과 요나단은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Ziphites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다윗이 우리 가운데 그 요새에 숨어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제 폐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를 왕의 손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은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윗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주님의 종이요 대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들리네요.

따로따로 살펴보면 사울은 십 족속이 자기를 염려하였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느니라. 글썄요, 모든 축복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사울과 협력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교활하다고 하던데, 정보를 구해 주시면 제가 그를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격려해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인가? 조나단은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그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바위 아래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그곳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은 산 이편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편으로 사울을 피하려고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다가오자 사울은 맹렬히 뒤쫓아 갑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를 추적한 것 같습니다.

전령이 나타나 사울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오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노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땅을 침공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추격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섭리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으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하자면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딱 맞는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그리고 사울은 떠난다.

우리는 24과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상황은 24장으로 갈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울과 대결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일종의 머리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것을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13회기 사무엘상 21-23장입니다. 도망가는 다윗(21장), 날뛰는 사울(22장),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23장).